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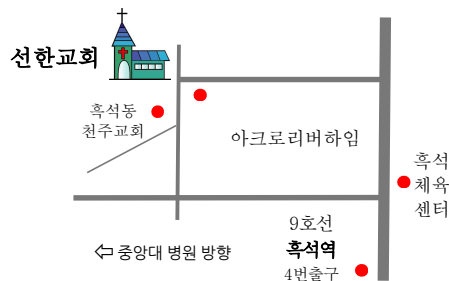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이 태 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편 도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 5:5~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찬 양 과 경 배	285장 (통일찬송가 209장)		
기 도	윤 호 중 장로		
특 송	[광야를 지날 때] 최 영 석 집사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0절		
설 교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어리석은 자의 특징 (시14:1-7)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직 회	7월 3일 주일 11시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2. 예 배 안 내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 : 사도행전 21장~고린도후서 13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 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5. 떡 제 공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떡을 제공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한주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	--

믿음과 사랑의 균형

찬송 :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통383)

본문 : 데살로니가후서 1장 1~3절

말씀 :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과 무슨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 극적으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난산과 같은 출산이었지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성경을 가르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난동으로 인해 그는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랬으니 사도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중에서도 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신실한 교인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한 핍박 소식을 들은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보냈던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능력이지요. 데살로니가교회를 볼 때 그들이 믿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위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교회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니까 사랑도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니까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 결과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면 나무나 돌처럼 딱딱해지겠지요. 반대로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상처를 받고 불안감만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잘 잡히면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5:1-10)

서 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빛의 아들들의 삶

- (1)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9절)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하심(10절)
 - (2)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함(5절)
 - (3)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6절)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음(3,4절)
 - (4)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8절)

2. 교훈

- (1) 그리스도인은 왜 빛에 속한 사람인가?
- (2)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3) 나는 지금 빛과 어둠 중 어디에 더 가까이 속해 있는가?

결 론 늘 깨어서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조계승 장로

매일 Q.T.		목자 되신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날짜 : 6월 27일
찬양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본문	시편 23:1~6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그는 평생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편 23:1~4 시편 기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나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묵상질문 2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23:5~6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시편 기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잔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23편 1절 시편 기자는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점점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목자를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수록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만족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임하는 은총입니다.(시34:10)		
적용			
오늘의 기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주님이 계시니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재정난으로, 삶의 여러 문제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제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
찬양과 기도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새 67)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예화유럽 여행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의 필수 코스 중의 하나는 버킹검 궁 투어일 것입니다. 투어 중에서도 궁전 근위대 교대식을 보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서둘러 옮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교대식이 진행되는 너머로 버킹검 궁이 보이는데 궁의 정중앙에는 영국 왕실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깃발이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시가 되면 버킹검 궁에 근무할 근위병들은 군악대의 음악에 맞춰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위병들은 교대할 근위병들과 특별한 의식과 같은 몸동작을 반복하며 교대식은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대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모여듭니다. 근위병들의 몸동작은 한사람이 움직이는 것같이 절도가 있고, 시선,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털로 만든 털모자와 붉은 망토가 주는 느낌은 이들의 의식이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자신감 넘치는 동작들은 궁 안에 있는 여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에 따라서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나누기	시편 24:1~10	
묵상포인트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성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영광의 왕이 입성해 거하시도록 마음의 왕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과 행실을 살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마 6:24),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성 안에 울려 퍼진 승리의 감격, 그 함성과 경이로움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나요?(7~10절)	
적용하기	내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일들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예배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며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 '주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날짜 : 7월 1일
찬양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본문	시편 27:1~14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나도 태연하다 합니다. 그의 소원은 평생 하나님 집에 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는 주님 얼굴을 찾는 자신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27:1~6 대적의 위협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나요?		
묵상질문 2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27:7~14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진 확신은 무엇인가요? 거짓과 악한 말로 공격받는 상황을 이겨 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27편 4~5절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심'입니다. '여호와와 집', '성전', '초막',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는 유익을 형상화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의 숨기는 돌보심,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로 인한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친히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1~3절)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눈앞에 어둠이 가득하고 모든 상황이 삶을 위협할 때도 주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삶의 유일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며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영왕의 왕이 임하시는 삶	날짜 : 6월 28일
찬양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본문	시편 24:1~10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손과 마음이 깨끗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하지 않는 자로, 이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입니다. 영광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영원한 문들이 들릴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24:1~6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인가요?		
묵상질문 2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24:7~10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인가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한절묵상	시편 24편 3,6절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이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이를 바꿔 "성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이것이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닫힌 문들이 하나님 앞에 빗장을 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옛 자아를 부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서 허탄한 세상 것을 좇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매일 Q.T.		죄인의 간구와 소망,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날짜 : 6월 29일
찬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시편 25:1~2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신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진리로 교훈하시길 구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 영혼이 평안히 살며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속량을 간구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최악이 크오니 25:1~15 시편 기자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나는 외롭고 괴로오니 25:16~22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한절묵상	시편 25편 5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그분의 응답이 도래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시며, 소망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와’는 ‘신뢰 가운데 기대하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응답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은 진실한 기도가 되고, 변치 않는 기다림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선한 응답은 그 가운데 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인생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지요.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곤고한 제 영혼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토설하는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정당하고 당당한 간구	날짜 : 6월 30일
찬양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시편 26:1~12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해 단련하시길 원합니다. 진리 중에 행하고 허망한 사람과 함께 앉지 않은 그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완전함에 행하니 자기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속량하시길 간구합니다.		
묵상질문 1	바른 삶에 대한 고백 26:1~7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요? 세상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신앙의 도전 26:8~12 시편 기자가 사랑한 것은 무엇인가요? 행위가 깨끗한 이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한절묵상	시편 26편 11~12절 주님의 은혜는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억울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기꺼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는 두 가지 곧 ‘주님의 완전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심과 약속을 눈여겨 보십니다. 주님 뜻과 일치되는 결심과 약속은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제 뜻과 양심과 행위는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순수한 마음의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며, 약한 세력과 손잡지 않고 철저히 거리를 두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